



이 천 용
「숲과 문화」 편집인

동요 속의 숲과 자연

글을 시작하면서

동요는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쉽고, 아름다우며, 서정적이다. 아무래도 아이들 마음에 부드러움과 사랑과 자연을 심겨 주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미리 누리 미래의 기둥이 되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리라.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누가 잠자나/산새 들새 모여 앉아 꼬박 꼬박 잠자지”〈목일신謠 ‘누가 누가 잠자나’〉라는 동요에서도 자연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박목월 시인은 속삭이는 노래가 즐거우며 마치 냇물이 흐르는 소리라도 같고, 노래를 부르면 해와 달 모든 자연이 내 친구 같다고 하여 자연과 음악은 시인의 입에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윤석중이나 박목월 시인의 시가 많음은 그들이 어린이를 자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윤석중 시의 ‘릿자로 끝나는 말’의 가사에는 동식물중 ‘피꼬리’와

‘개나리’가 등장하는데 어린이들이 개나리처럼 활짝 웃고, 밝으며, 피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음을 묘사하는 것일 것이다.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와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적이다. 산새 소리를 호롱 호롱이라 한다든지, 쫓로롱, 짹짹 굴, 호로비배중 등은 묘사하기조차 힘들다. 필자가 조사한 500여 곡의 동요중 100여 곡은 나무나 숲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를 소개하여 잊었던 동심의 세계 즉 자연의 세계를 되찾아 보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동심과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로 몰입되는 듯 한 없이 기분좋은 부인할 수가 없다. 좋은 말과 곡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동요의 봄’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요의 탄생과 흐름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어 젊은이와 같이 아이들을 대접하여 부르기 시작하고,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운동을 주창하였다. 그는 일본 유학 중 윤극영 선생에게 동요를 매개로 어린이 사랑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하여 두 사람은 최초로 그 유명한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형제별」을 외국 곡에 요(謠)를 붙여 만들었다. 2년 후 일본에서 ‘색동회’를 창립하고 서울에서 소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윤극영, 진정섭 선생 등이 동요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윤극영 선생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 주기 위한 창작 동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나이에 관계없이 부르던 창가(唱歌)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전용 노래가 탄생한 것이다. 창가는 이때부터 가곡, 동요, 그리고 유행가로 갈라졌으며 이 중 동요는 아동문학과 함께 발전하였다. 창작 동요는 운율 면에서

볼 때 대부분 7·5조의 전형적인 음수율에서 벗어나 4·4조, 6·5조, 8·5조 등 다양한 음수율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가창 동요(歌唱童謠)에서 요적 동시(謠的童詩)로, 다시, 자유 동시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1924년 윤극영 선생은 최초의 창작 동요 「반달」을 작곡한 후 설날, 귀뚜라미, 따오기, 고드름 등과 같이 유명한 곡을 작곡하였으며 이것들을 모아 1926년에는 최초의 동요집 「반달」을 발간하였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기 한 마리 뚝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창작 동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또 한 분은 윤석중 선생이다. 춘원 이광수가 “조선 아기 노래 시인의 거벽”이라고 극찬한 윤석중 선생은 동요 문학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는데 윤극영과 함께 「흐르는 시내」를 만든 후 끝없는 창작 활동을 하였고, 1932년에는 「윤석중 동요집」을 냈으며 머리말에 춘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아기네 밖에 또 있는가. 아기네는 인생의 꽃일 뿐더러, 지구의 꽃일 뿐더러 실로 우주의 꽃이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기로,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기로, 별이 아무리 아름답기로, 생각과 소리가 아무리 아름답기로 아기네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이 아름다움

을 그림으로 그릴 붓은 없다. 움직임으로 표할 춤도 없다. 오직 그것을 보고 경탄하고 기뻐할 맘을 우리는 가졌을 뿐이다. 오직 그림이나 노래로 그 한 귀퉁이 한 부스러기를 흉내내어 본다. 이는 그 아름다움이 가장 높고,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부스러기에 흉내조차도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다. 아기네 노래 동요는 이 흉내 중의 하나이다. 어른으로서 아기네의 맘의 움직임, 뜻의 흐름을 흉내내어서 말과 소리로 표현해 보자는 것이 ‘동요’다. 아기네 자신은 결코 동요를 짓지 아니한다. 그들에게 지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 노래요, 하는 모든 행동이 춤이다. 그들의 눈과 귀의 마음에는 인생과 우주는 온통 한 덩어리 보표요, 그들의 사지 백체는 곧 건반이기 때문이다.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지은 노래도 즐겨 할 줄 안다. 자기네의 예술 안에 그럴 듯한 것이면 그들은 기뻐서 불러 준다. (하략)”

윤석중 동요집에서 가장 많이 불리운 노래가 ‘산바람 강바람’이다. 이 노래를 보면 반복·대조·對句의 기법을 통하여 자연을 잘 표현하였으며, 작품에 나타난 감정은 윤극영의 ‘반달’에서 보는 애상성은 사라지고 어린이가 도리어 어른의 슬픔이나 갈등을 해

소해 준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 준대요.”
〈윤석중 謠 ‘산바람 강바람’〉

동요 발달에 공헌한 작곡가로서 홍난파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윤석중 요(謠)에 그의 곡을 붙여 유명해진 것에는 ‘낮에 나온 반달’, ‘풍당풍당’이 있으며, 조선 동요 100곡집을 출판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100곡의 동요 중 자연을 담은 제목은 ‘할미꽃, 고향의 봄, 은행나무 아래서, 나뭇잎, 빨강 가랑잎, 기러기, 봄이 오면, 제비꽃, 갈잎배, 밤한톨이 떡떼굴, 까치야’등이다.

한편 일제시대에 일본 강가를 강압적으로 가르치라고 하여 동요가 발전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 또한 이 때 작곡된 곡은 암울했던 사회를 어린이를 통하여 격려하는 것이 많았고, 그 시대에 벌거숭이 민둥산을 푸르게 가꾸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려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갔다오.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가 사는 산,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불러도.

아무도 대답없는 별거숭이 붉은 산, 메아리도 못 살고서 가버리고 없다오.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유치환謠 '메아리'〉

해방 후에는 창작 동요가 방송사 주관으로 많은 행사를 거쳐 매스컴을 타고 널리 전파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요집을 출판하였다. 동요에 정열을 바친 사람들이 없었으면 동요의 발전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죽하면 동인들이 모여 "노래가 없고 보면 무슨 재미로 냇물이 돌틈으로 굴러다니며, 노래가 없고 보면 무슨 재미로 바람이 숲 사이로 지나 다니랴"라는 가사의 동요를 신나게 불렀을까. 최근의 창작 동요는 자연 등을 소재로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자람을 희망하는 내용이 많음에 비추어 시대에 따라 동요의 음과 언어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숲과 자연에 관한 동요의 내용을 편의상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자.

계절의 표현

1. 봄

봄은 꽃이다. 싹이 나기도 전에

먼저 꽃을 피우는 자연과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흰색을 조화롭게 표현한 다음, 가사를 보면 꽃 속에 파묻힌 느낌이 가득하다. 어찌 꽃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만은 동요는 가능하다. 겨울의 움츠렸던 세상이 밝아지는 봄이 바로 어린이를 상징하기도 하여 봄을 주제로 한 동요가 상당히 많다.

"하얀 눈이 흘날리네.

꽃잎파리 하얀 꽃 눈,

하얀 꽃이 흘날리네.

하얀 꽃 눈꽃이 피네.

배밭나무 과수원길을 혼자서 걸어가면 소복이 흘날려 오는 하얀 배꽃 꽃눈보라.

하얀 배꽃 한 움큼 손에 모아지고 가네. 차갑지도, 서럽지도, 햇볕에도 녹지 않네.

향기로운 하얀 배꽃, 배꽃같은 누나 얼굴, 그리움이 흘날려오는 하얀 배꽃 꽃눈보라"

〈박화목謠 '꽃눈'〉

봄은 개울가의 버들강아지에서 온다. 마을이 개울 주변에 발달하니 우선 보이는 것은 깨끗한 개울 옆에 빨간 버들가지를 세우고 꽃을 피우는 버들강아지다. 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고 온갖 자연의 만물이 움직인다. 봄은 색으로, 봄비로, 동물의 기지개로, 새소리로 온다. 봄 색은 연두색이다. 봄은 개구리가 먼저 반긴다. 비가 오면 봄은 짙어진다.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동요다.

"새들이 지저귀는 저 소리는

포름한 연두색이다.

땅에선 물콩물콩

숫아나는 상큼한 흠내음.

바람이 속삭이는 저 소리는

무지개 일곱색이다.

숲속에 휘파람이

번져나는 향긋한 봄내음.

(후렴)나뭇가지들 마다 분홍꿈 키우고 살짝 고개를 들면,

어디선가 다가오는 향기로온 꽃내음. 봄이 오는 소리"

〈남진원謠 '봄이 오는 소리'〉

"새파란 봄 하늘에 아지랑이 꿈꾸고, 풀피리 소리에 꽃 눈뜨고, 나비는 즐겁게 꽃바람 사랑 불면, 진달래 손을 잡고 날아라.

산새야. 꿈을 싣고 새 봄 노래 하자.

새파란 봄 하늘에 버들가지 춤추고, 여울 물소리에 장단 맞춰 나비는 춤추네.

꽃바람 사랑 불면 개나리 손을 잡고 날아라.

산새야. 꿈을 엮어 새 봄 노래 하자"〈권숙자謠 '새 봄'〉

"봄이 오면 파릇파릇 소리도 없이, 버들가지 가지마다 새싹이 트고.

봄이 오면 언니하고 바구니 끼고, 나물 캐러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봄이 오면 울긋불긋 소리도 없이, 산과 들엔 가지 가지 꽃들이 피고.

봄이 오면 오빠하고 냇가에 나가, 버들 피리 불던 일이 생각납니다.

〈김묘순謠 '봄이 오면'〉
 '술술 봄비가 내렸다.
 나무마다 손자국이 보이네.
 아, 어여쁜 초록 손자국.
 누구누구 손길일까.
 나는 알지.
 아무도 몰래 어루만진 봄님의
 손길.

술술 봄비가 내렸다.
 뜨락에는 발자국이 보이네.
 아, 어여쁜 초록 발자국.
 누구누구 발자국일까.
 나는 알지.
 아무도 몰래 어루만진 봄님의
 발자국'〈김요섭謠 '봄비'〉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마을에
 움돋고 꽃피는 봄이 왔어요.
 한겨울 땅 속에 잠자던 개구리
 바스스 잠 깨어 뛰어 납니다.
 앞내와 뒷뜰에 얼음 풀리고,
 남산에 쌓인 눈 녹아내리니.
 넓은 들, 잔디는 속익이 나고,
 실버들 가지가 파랗습니다.'

〈박청남謠 '봄이 왔어요'〉
 "뒷산에는 눈 녹은 개울 물소리
 돌돌돌돌돌돌 봄을 부르네.

봄 아씨, 꽃 아씨, 어여쁜 아씨
 꽃수레, 금수레 타고 오세요.
 얼음이 녹아서 시냇물 소리
 돌돌돌돌돌돌 봄을 부르네.

산에도 들에도 꽃방석 펴면
 우리도 즐겁게 봄 잔치하자."
 〈박목월謠 '봄 잔치 하자'〉
 "산수유 꽃망울에 꿈이 흐르
 고, 양지 쪽 봄 햇살은 꽃보다
 더 고와.

이끼 낀 골짜마다 산새가 울어,

사르르 사르르 봄 잠을 불러 오네
 요.

산이 가만가만 숨을 쉬는지,
 진달래꽃 가지에 바람이 이네.
 어머니 치마폭처럼 살며시
 두르고 조용히 산을 품고 앉아
 있네요."

〈최정애謠 숲속의 봄〉

"이른 아침 색실 풀어
 양지 쪽에 늘어놓고,
 봄 햇살이 씨실되어
 아롱다롱 수를 짠다.
 분홍실은 꽃잎되고,
 노랑실은 나비되어
 양지바른 산기슭에
 꽃이 피고, 나비 난다.
 이른 아침 고운 김실,
 산과 들에 들여놓고
 봄 바람이 씨실되어
 아롱다롱 봄을 짠다.
 초록실은 짝이 되고,
 연두실은 잎이 되어
 산과 들에 새 싹 피고,
 나뭇가지 움이 튼다."
 〈김종상謠 '아지랭이'〉

2 여름

여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
 현을 보면—무덥다. 초록색이다.
 물이 시원하다. 야생화가 산 속에
 많다는 등 숲이 가득찬 느낌을 주
 는 계절이다.

"푸른 산이 부른다.

우리들을 푸른 숲이 부른다.
 우리들을 산딸기 따러가자.
 산으로 가자. 매미채 둘러 메고
 숲으로 가자"

〈강소천謠 '여름방학'〉

봄보다는 소재가 많지 않고, 시
 어도 아름답지 않지만, 무더운 여
 림을 이기기에는 충분한 청량제
 가 되는 노래들이다. 전술한 윤석
 중의 '산바람 강바람'은 등산하
 다 나무 밑에서 쉴 때면 으레히
 생각나는 곡이다.

여름 숲은 한가롭다. 산에서 나
 는 대표적인 나무, 도라지를 캔다
 든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주변
 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세상을 잊
 는다.

"도라지 캐러 간 바구니 속에
 나리꽃, 매꽃이 웬일인가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게 여름이죠."

〈김영수謠 '여름'〉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피꼬리는 피팔피팔."

〈황금녀謠 '여름 냇가'〉

3 가을

가을은 자연을 노래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계절이다. 특히 자연
 요소가 많아 하늘, 달, 낙엽, 단
 풍, 열매, 동물, 곤충 등 풍부한
 사물이 詩語의 대상이 된다.

가을은 풍요롭다. 그리고 단풍
 이 들 때는 아름답지만 낙엽이 떨
 어지는 모습 속에서 추억과 쓸쓸
 함을 느끼는 계절이다. 먼저 풍요
 로움을 상징한 노랫말을 보면 대
 추가 붉게 물들고, 도토리가 여물
 며, 밤송이가 토실토실해지고, 들

국화꽃 피우는 가을의 서정은 동요답다.

“대롱대롱 대추알엔 추석
빛이 물들고,
토실토실 밤송이엔
가을이 익어간다.
때롱때롱 방울벌레 들국화,
꽃 피우고……”

〈최복현謠 ‘가을’〉

또한 가을에 가장 많이 부르는 곡 중의 하나인 백남석의 ‘가을’을 보면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수확하는 시기이며, 계절이 바뀌는 모양을 나무들이 옷을 갈아 입어 앞산, 뒷산 모두 빨강게 노랑게 예쁜 색으로 변하며 또한 형형색색으로 물들은 숲속의 길이 비단길이요, 우리 길이고 고운 길이라고 찬미한다. 노을에서 색동옷 갈아입는 가을 언덕이라고도 표현한다. 가을바람을 살랑거린다고 말하거나 그 바람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나뭇잎을 귀엽게 보기도 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
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
입고서.

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오면 다시오라 부탁하
누나”〈백남석謠 ‘가을’〉

한편 박목월은 여름이 지나고 오는 가을을 하늘 높고, 물 맑지만 단풍잎도 우수수 떨어뜨리고, 바람이 가을 신고 오면 기러기도 춤추며 온다고 하면서 녹음이 충분한 여름 끝에 오는 가을의 쓸쓸한 감정을 표현한다.

가을 보름달은 특히 시인들의 주요 소재이다. 휘영청 밝은 밤에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을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달밤에 찾아 온 손님은
가랑잎 하나 가을바람에
쫓겨온 가랑잎 하나”

〈박화목謠 ‘가랑잎’〉.

특히 가을밤은 어딘지 모르게 처량한 느낌이 강하다.

“나뭇잎이 사르르 떨어지네요.
혼자서 오솔길을 걷고만 싶은
고요한 가을밤은 깊어가는데
나뭇잎이 사르르 떨어지네요.”

〈장수철謠 ‘가을 밤’〉.

가을은 또 소풍의 계절이다. 소풍의 주가 단풍일인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주변 단풍을 감상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단풍 잎을 밟으며,

바구니 끼고서 밤을 줍네,

가을도 밤처럼 익어가네.

파란 가을, 맑은 바람, 따스

햇빛 받으며,

장대를 들고서 감을 따네,

가을도 감처럼 익어가네.”

“단풍잎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
자,

산새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맞은 편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 떼아리가 대답하는 산
으로 가자.”

〈강소천謠 ‘소풍’〉

4. 겨울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덮인 옹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애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이원수謠 ‘겨울나무’〉

황량한 겨울, 눈 덮여서 무엇도 찾지 못 할 것 같은 세상에서 나무만은 지조를 지키며 곳곳이 서 있는 모습이 대견하다. 옛날 겨울 추위는 의식주가 부실해서 그런지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추억이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 온난화도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겠지만 아뭏튼 겨울은 추웠다. 겨울에 할 수 있는 일이 시골에서도 아무래도 크게 한정되어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대자연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부엉이도 춥고, 가랑잎도 추워서 온다고 하였을까. 사랑방에 모여앉아 화롯가에서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면 지금의 정취와는 너무도 다르지 않을까.

눈덮인 산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겨울날은 사람도 없어 더욱 황량하다. 눈덮인 산과 나무의 모습은 동요에서는 기본이다. 눈을 이고 있는 나무의 모습은 눈이 내리자마자 본 것과 시간이 지난 다음의 실경은 다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눈 쌓인 나무 모습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